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7월 19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5-17)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
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
운데 낙심과 절망에 쓰러져 있게 하지 마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5장** **다같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6:1-8, 16-18** **인도자**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설 교 **“아버지의 상을 받으라”**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322장** **다같이**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아버지의 상을 받으라”

(마태복음 6:1-8,16-18)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상급을 쌓는 생활입니다. 상급에는 “자기의 상”과 “아버지의 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은 자기 스스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의 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위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마6:1). 때로 선행이 걸림돌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의”를 행한다고 해도 어떤 동기와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 외에 다른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의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것은 율법처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좋은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오도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되 바른 의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대 의를 행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명예, 감투와 공적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상”, “세상에서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며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에게서 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제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구제입니다. 되값을 수 없는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멸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거짓 감사기도, 회개 없는 기도, 간구가 없는 기도, 겸비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자아는 부풀어 오르고 영혼은 오그라듭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에 온통 신경 씁니다. 기도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없이 제자가 되기 힘듭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레에 두 번씩(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하는 의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자로 하여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본래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구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제는 남을 섬기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금식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밀함의 훈련”으로 아버지의 상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